



인권도시 광주 이렇게 만들자

시민들의 인권 지식·의식수준 (5)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발표한 '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광주시를 중심으로)'를 보면 광주시민의 38%만이 '한국사회의 인권현황'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다'는 물음에도 93%는 모른다고 밝혔다. 그만큼 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광주시가 인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주체인 지역민들의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의식수준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광주시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이려는 정책을 만들어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광주시민들의 인권의식은 어느 정도에 와 있을까?



광주삼각초등학교 학생들이 5·18 유적지를 방문하는 등 현장중심의 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시민 10명 중 6명 '한국 인권현황' 뭔지 모른다

◇광주시민들이 생각하는 한국사회의 인권현황=한국사회의 인권상황 인지 정도'를 묻는 물음에는 광주시민들은 어떻게 답했을까? 시민들은 '매우 잘 알고 있다' 3.4%,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5.3%, '잘 모르고 있다' 47%, '전혀 모르고 있다' 15% 등으로 답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인지하고 있는 비율 38%, 모르고 있는 비율 62% 등으로 상당수의 시민들은 아직도 인권상황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에 대한 물음에는 '매우 존중된다' 1%, '존중된다' 11%, '보통이다' 45%, '별로 존중되지 않는' 32%,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6%,'모르겠다' 5% 등으로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불과 12% 수준에 그쳤다. 반면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밝힌 응답자는 38%로 조사돼 상대적으로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에 대한 관심을 묻는 물음에는 전체 응답자 중 52%가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권 현안 인지와 정책적 사안'을 묻는 물음에는 30%만이 알고 있다고 대답해 인권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광주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광주를 인권도시라고 하는데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여성들은 광주를 인권도시라고 하는 데는 53%의 시민들이 찬성했고, 반대는 4%에 불과했다. 또 인권친화적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해야 할 일로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제도 기반 구축과 생명권 존중 등 자유권 보장 강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광주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광주를 인권도시라고 하는데 찬성하는 비율은 남성, 50대,

정규직 문제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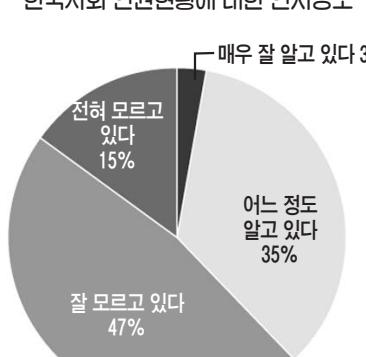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한국사회의 인권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도 남성이 더 높았으며, 논란 중인 인권현안에 대한 관심도 남성이 더 높았다.

특히 20~40대 계층과 월 소득 300만원 이상 집단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사무·경영 집단에서는 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지만 농수산·생산직 집단에서는 한국에서의 인권존중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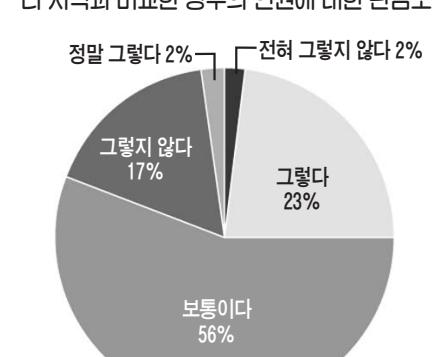
◇광주의 인권상황=광주시민 25%는 '광주가 다른 지역사회와 비교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고 답한 반면 19%는 '그렇지 않다', 55%는 '보통이다'고 답해 광주가 인권에 대해 관심이 높은 지역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광주를 인권도시라고 하는 데는 53%의 시민들이 찬성했고, 반대는 4%에 불과했다. 또 인권친화적 도시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직업에 따라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직업에서는 판매·자영업, 사무·경영, 주부, 학생 등이 광주가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더 높다고 평가했고, 광주를 인권도시라고 하는데 찬성하는 비율은 남성, 5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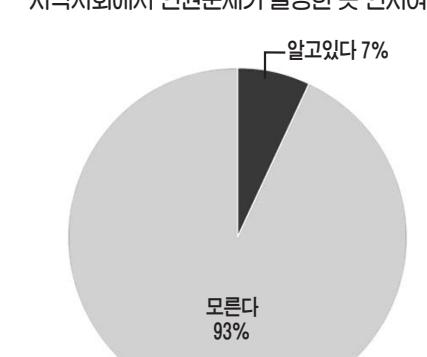
한국사회 인권현황에 대한 인지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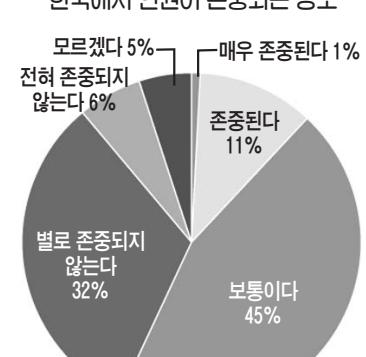
타 지역과 비교한 광주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한 곳 인지여부



한국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지역사회 인권문제 발생해도 93%가 모른다… 대다수 시민 관심 부족

성별·연령·직업·소득 따라 의식수준도 큰 차이… 차별화된 교육 필요

인권에 대해 관심이 높고, 광주를 인권도시라고 하는데 찬성했고, 반대는 4%에 불과했다. 또 인권친화적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해야 할 일로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제도 기반 구축과 생명권 존중 등 자유권 보장 강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광주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광주를 인권도시라고 하는데 찬성하는 비율은 남성, 50대,

사무·경영, 월 소득 300만원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광주시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가 34.5%로 '심각하지 않다' 12%보다 3배가량 높게 나타났고, 광주의 인권상황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나아졌다' 18%, '나빠졌다' 5%로 조사돼 광주시민들은 광주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는 심각하고,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별 변화가 없거나 나아졌다 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7%로 수준인 반면 '모른다'는 응답은 93%를 차지하여 인권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현저히 높게 조사됐다.

◇인권도시 도약을 위한 대안은=광주시민들은 아직까지 인권도시 광주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시책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광주시민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

장 먼저 시와 각 자치구에서 시민들이 인권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또 성별, 연령, 직업, 소득 등에 따라 인권현황이나 의식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차별화된 인권교육이 필요한 상

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이정강 소장은 "인권에 대한 역사나 개념 등 이론적 지식보다 실제 현장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구제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실습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권체험관, 찾아가는 인권교육, 지역단위 인권 실천사례발표 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봇이나 롤라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다에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치자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부식,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포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엔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엔지 특수 미화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현대공인증개사

공인증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액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 원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디자인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 ~ 300평 • 용도지역: 자연녹지 • 용도 : 주거장
- 창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92천 원 매도가 895천 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원 보증금 7억 원 대로 1400만 원
- 매도가 45억 원 보증금 6억 원 2900만 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63평 30m 도로집: 농지전용 원료, 매매가 협의 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 원
- 광장 창고용도로 적합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창성리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 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우선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다구주주택

- 동구 산수동 3층디자인주택 대지152평 건평180평
김정기 59천 원 최저가 4억 2천 원

상가및근린시설

- 남구 월간동 500㎡ 대로변(상업지역) 대지 1330평
2층건물 400평 김정가 20억 원 최저가 11억 5천 원
- 북구 오치동 4층상가건물 대지 141평 건평 199평
김정기 15억 1천 원 최저가 13억 5천 원

단독주택

- 북구 오치동 2층단독주택 대지 67평 건평 65평
근린주택 김정가 11억 8천 원 최저가 10억 3천 원

근린주택

- 동구 지신동 2층근린주택 대지 123평 건평 94평
김정가 4억 8천 원 최저가 3억 8천 원

토지매매

- 회순군 도곡면 도곡면 청량리 4차선도로변 관리지역
농지 1500평 매매 평당 50만 원(조정가)

- 담양군 남면 구산리 황원당행방방원부근 대지 224평
관리지역 매매 평당 50만 원(조정가)

- 광산구 대신동 관리지역 전망좋음 치령진입 가능
현 백길총식재(포함매매가능) 매매 8천 원

광주 남구 월간동 구, 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

가은부동산

일곡동 토지 매매
최고 “병원” 부지

- 대지면적: 960평
- 매매금액: 45억 원
- 응자금액: 20억 원 포함

상무지구빌딩매매

- 대지 : 257평
- 연건평 : 900평
- 보증금 : 4억 3천 원
- 월 220만 원
- 용자금 : 10억 원
- 매매가 : 38억 원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 분양면적 : 106평
- 분양가 45억 원/월 650만 원
- 응자금 : 5억 원 포함
- 월 220만 원
- 용자금 : 10억 원
- 매매가 : 38억 원

상무지구 레드시내마 11층